

정교 분리에 대한 바른 이해

삼선 개헌이라는 문제를 둘러싸고 요즘 일반 언론계나 교계에서 한결 같이 정교 분리를 말하고 있다. 중동의 긴급 사태가 종교적인 대립 감정에서 불씨를 찾았다. 아일랜드의 신·구교의 대립 전쟁은 마치 이십 세기의 종교 전쟁이라고나 할 수 있을 것 같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닉슨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빌리 그래함을 초청하여 예배를 보았다고 해서 라인홀드 니버 교수가 정교 분리 원칙을 들어서 반대했다. 한국의 어떤 유력한 일간지는 니버 교수의 이러한 반박을 들어서 요즘 한국 안의 종교 단체의 동태를 비꼬는 글을 실었다. 각 종교 단체가 개헌에 대한 성명을 내는데 대해서 차라리 종교 단체는 잠자코 있는 것이 정교 분리의 원칙에 맞는 일이라는 결론인 것 같다.

우리는 주요한 정치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이러한 정교 분리를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것을 본다. 정교 분리는 미국의 건국 시대에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는데 지나친 기독교적인 영향을 주면 정치를 그르치므로 될 수 있으면 정치적인 문제에는 종교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게 하려는 배려에서 시작된 것이다. 교회의 영향이 정치에 지나치게 관여하면 오히려 교회의 선교에 방해가 되며 또 정치 영역의 본래적인 권력 투쟁에 말려 들어가기 쉽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 정교 분리는 소위 중세기 이전까지의 기독교 국가(Corpus Christianium)라는 개념이 끝나게 되었다. 이제 이러한 정교 분리의 원

칙이 현대 사회 안에서 사회 정의를 추구하는 마당에 타당한 것이냐 하는 것은 새로운 신학적인 과제로 대두되었다고 할 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정교 분리가 결코 교회가 정치적인 문제에서 외면하거나 도피하라는 뜻에서 생겨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을 가지고 그 정치가 지닌 운명적인 한계, 즉 종교를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을 수 없는 운명적인 한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교 분리를 부르짖는 것이다. 또 그것이 니비 교수의 진의라고 믿는다.

교회는 어느 누구보다도 정치적이며 정치적인 활동을 한다. 그러면서도 국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는 이유는, 권력 구조 속에 휘말려 들어 감으로써 선교의 발전을 저해 당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정치적인 문제에 대한 확고한 신념과 견해마저 가지지 말라는 뜻은 결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요즘 정교 분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문제의 성격을 흐리게 하여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감이 없지 않다. 따지고 보면 정교 분리를 주장하면서 한 편으로 신문 지상에 정명서를 내는 일 자체가 하나의 정치적인 견해 표명이 아니고 무엇인가? 오히려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일수록 중대한 정치적 이슈에 대해서 책임있는 발언을 하면서 권력 앞에는 무던히 약한 사람들이다. 결국 정교 분리는 이들의 무책임을 정당화하는 구실 밖에 못하는 것이다.

크리스천도 한 시민으로서 자기 나라의 정치적인 진로에 대해서 예민한 감각을 가져야 되며, 투표를 함에 있어서도 정치 구조의 성격과 후보자의 적격 여부에 대해서 양심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교회의 협동적인 기구를 통해서 그 정치적 견해를

발표하게 된다. 이러한 정치적 신념이나 책임있는 발언마저 정교 분리에 어긋난다고 하면 그것은 정교 분리의 근본 정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삼선 개헌을 앞에 두고 여러 가지 입장에서 찬성 반대의 논진을 펼 수가 있다. 우리는 각자가 신앙 양심에서 자기의 소신을 밝히고 교회로서 깊어져야 할 책임을 감당해야만 할 것이다. 그런데, 정부나 정당에서 보다 교회가 먼저 정교 분리를 내걸고 교회의 발언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입에 자갈을 물겠다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 나라의 장래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심정에서 정치적인 문제에 발언을 한다는 것이 참으로 믿음직한 크리스천의 자세가 아니겠는가?

개혁 문제는 오늘 이 순간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문제라기보다 자손 만대에 넘겨 줄 유산을 다루는 문제라고 생각해야 할 것이다.